내가 선택한 현실이 내 목을 조른다

(사무엘상 8:10~22)

10.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으로 <내가 선택한 현실이 내 목을 조른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가 선택한 현실이 내 목을 조른다'

우리는 현실을 삽니다. 그러나 '현실을 산다.'는 말이 너무나 지당한 말이어서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LA, 일본의 동경, 중국의 북경에 사는 것도 아니라 나의 현실을 사는데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현실이 이렇다 / 내 현실이 말이 아니다 / 너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을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느끼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그릇 인도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됩니다.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현실에 억눌려서 괴로워하며 고난으로 탄식하는데 놔버리면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있으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육체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조차도 내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현실(現實)의 자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現)은 나타날 현(現)인데 구슬 옥(玉) 변에 뵈올 현(見), 볼 견(見)이 붙은 것입니다. 옥구슬을 갈 때에 빛이 나서 내 시선을 사로잡는 것처럼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 실(實)자는 (宀)변의 '집안'이라는 뜻에 꿸 관(貫)으로 집안에 동전을 줄로 꿴 꾸러미가 가득차서 뿌듯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공허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좋은 것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원수로 채울지라도 공허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글자가 합쳐진 현실(現實)은 옥을 갈 때처럼 빛이 나서 다른 주변의 사실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시선을 사로잡아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는 대상(사건이나 상황)입니다. 내가 눈길을 주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현실(現實)의 현(現)자는 구슬 옥(玉)을 임금 왕(王)으로 바꾸어도 뜻이 맞습니다. 한자 자체로도 임금 왕(王)은 왕(王) 자이면서 옥(玉)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즉 왕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나타날 현(現)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은 그 나라의 우두머리로 그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현실은 왕이 내 눈 앞에 나타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이므로 내가 지금 현실로 느끼는 상황은 내 마음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다른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인간관계는 좋다는 사실 등등의 많은 사실이 있지만 돈이 없는 사실을 1등으로 선택해서 다른 사실들은 다 어둠 속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사실들이 주어지지만 그 많은 사실들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1등자리에 앉혀놓는 것만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실들 중에서 내 마음에 왕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구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 없는 사실을 현실로 선택하고 그 현실에 눌려 질식하고 있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다른 사실들을

가리듯이 다른 현실을 선택한다면 돈이 없는 것도 내 마음에서 가려질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것만을 현실로 고집하며 끌어안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택하게 되면 그 왕 밑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18절의 말씀대로 왕의 필요와 욕구와 명령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무게가 내 일생의 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람 왕을 요구합니다. 이 일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이 상징하는 바를 요구한 것입니다. 왕은 우리 마음에서 우두머리입니다. 그 왕의 자리에 이 세상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이 바로 왕을 요구하는 것인데 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내 삶에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건강문제, 재정문제, 자녀문제, 사업문제 등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주어져 있는 가운데 이 중에 하나를 왕으로 택해서 마음의 1등자리에 두게 됩니다. 재정문제의 사실을 1등자리에 두면 그것이 왕(현실)이 되어서 억눌림으로 부르짖게 되는데, 그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나의 현실로 택한 것은 내 마음의 왕이고 1등자리를 차지한 것이며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부터 버린 것입니다. 내가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돈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면 돈 문제를 왕으로 채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현실인 돈 문제를 왕으로 택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현실로 택해서 마음에서 1등자리인 왕의 자리에 두고 몰두하면, 삶은 납덩이같은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현실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이것은 특히 선민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입으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잡습니다. 성수주일의 종교적 원칙으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런 것

을 이유로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실감 속에서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1등자리에 세상의 사실들을 택하여 올려놓는 것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버려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1등자리에 모시지 않는 한 모셔 들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 자녀문제, 취직문제, 건강문제, 승진문제, 결혼문제 등이 우리 마음에서 1등으로 차지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사실들 중에서 내 마음의 우두머리 자리에 놓고 그것을 현실로 알고 살 때, 너희가 택한 현실이 너희를 짓누를 것이라는 경고를 해주시지만 선민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사실이며, 십자가 사건이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러한 많은 사실들을 나의 현실로 택하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 우두머리 자리에 모셔서 이 세상 사실들이 어둠에 묻혀버릴 정도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선민의 신비한 특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여유를 부립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 선택의 결과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눈에 보이고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고 '마음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편에 앉으신 주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현실이 되면 이처럼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사실까지도 가벼워지고 가벼워질 때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납니다.
돈 문제의 해결 방안은 돈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현실은 선택이고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도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사실이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사실인데 왜 이 사실들을 다 제쳐놓고 돈 없는 사실을 현실로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바위 덩어리를 괴력으로 내 위에 올려놓고 짓눌려서 신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일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돈 없는 사실, 건강이 안 좋은 사실, 자녀들의 사실 등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혼자 끙끙대며 목을 조르고 있는데, 자살행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괴망측한 행동을 날

마다 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실들을 현실로 택하지 마시고 왕으로 택하지 마세요. 현실은 글자 그대로 왕이 나타나고 빛이 나는 것이 내 시선을 빼앗아서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 교인들도 핍박 받는 중에 집 잃고 재산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도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죽이시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초대교인들이 한 일은 바로 하늘을 현실로 택한 것뿐인데 이 세상의 문제들은 티끌로 변합니다. 하늘을 현실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에 집을 잃고 쫓겨 다니더라도 티끌에 불과하게 되고 깃털처럼 가볍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적 체질 때문에 마음의 시선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한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는 나를 보며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돈 없는 것을 현실로 느끼려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 현실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구해봤자 듣지도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러한 내가 죽음으로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선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만을 현실로 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없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차오르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서 버려진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재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재료들이 되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현실을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늘만으로 십자가의 주님만으로 선택하여, 이 지구 전체가 내 마음에서 깃털처럼 여겨지는 상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